

손순매아조와 빈녀양모조를 통해 본 신라 하대 孝

고 소 진*

- | | |
|---------------|-------------|
| I. 서론 | IV. 신라하대 孝行 |
| II. 孫順埋兒條 분석 | V. 결론 |
| III. 貧女養母條 분석 | |

I. 서론

孝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으로, 가정 내에서 행해지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고대로부터 구전되거나 기록되어진 이야기들 중에는 효에 관한 것들이 많다.

그 중, 신라시대 효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 열전과 『삼국유사』 효선편에 남아있는데, 특히 『삼국유사』에서는 별도의 편목으로 孝와 善을 강조하였다. 효는 말 그대로 부모에 대한 효도를 말하는 것이며, 선은 佛에 대한 선행, 즉 신앙을 뜻한다.¹⁾

『삼국유사』 孝善편에는 진정사효선쌍미, 대성효이세부모신문대, 향덕사지할고공친경덕왕대, 손순매아흥덕왕대, 빈녀양모가 수록되어 있다.

효선편은 신라시대 ‘효 관념’을 알 수 있는 자료여서 일찍부터 연구되었는데, 고려시대 사상동향과 『삼국유사』의 찬술 배경을 연결하여 연구한 것과²⁾ 효선편의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 신라시대의 현실과악을

* 충남대학교 박사과정, sojin8179@hanmail.net

1) 이기백, 「新羅 佛敎에서의 孝觀念」 『東亞研究』2(서강대 동아문화연구소, 1983); 『新羅思想史研究』(일조각, 1986).

2) 민병하, 「三國遺事에 나타난 孝善思想」 『人文科學』3-4(1973); 김상현, 「三國遺事 孝善篇 檢

고려하여 연구³⁾한 것이 있다. 또한 효선편은 기이편과 首尾相應 관계로, 신라사회가 불교적 이상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孝’라는 현실에서의 실천윤리를 통해 호국불교 사상을 강조하였다고 보기도 한다.⁴⁾ 최근 연구에서는 평민층의 유교적 생전봉양과 사후 추선 및 불사회사가 주요담론인 『삼국유사』 효선편이 유불공존의 입장에서 이종의 유사적 성격을 띠고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고 파악하기도 했다.⁵⁾

이러한 연구 성과와 효선 사례에 대한 개별 검토⁶⁾들을 통해 효선편이 설정된 이유와 신라사회 효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효선편 설정이유들로는 효선편에 수록된 5가지 설화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는 유추하기 어렵다. 이것은 편찬자인 일연의 집필 의도를 파악해야 알 수 있겠지만, 이에 앞서, 효선편이라는 이름 아래 수록된 5가지 설화를 기본적으로 나누어 보자. 먼저 각 내용의 시기이다. 다른 편목은 수록된 설화의 시기가 일괄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순차적으로 수록되어 있지도 않다. 그에 비해 효선편은 시간 흐름에 맞게 순차적으로 수록된 편목이고, 설화의 시기들도 신라 중대와 하대로 구분이 된다.

5가지 설화 가운데 중대를 배경으로 하는 설화에는 진정, 대성, 향득의 이야기가 있고, 하대를 배경으로 하는 설화에는 손순과 빈녀이야기가 있다. 중대를 배경으로 하는 설화들은 다시 2가지로 분류할 수 있

討」『東洋學』30(2000).

3) 이기백, 「新羅 佛教에서의 孝觀念」 『東亞研究』2(서강대 동아문화연구소, 1983); 『新羅思想史研究』(일조각, 1986); 김두진, 「新羅 義湘系 華嚴宗의 ‘孝善雙美’信仰」 『韓國學論叢』15(1992).

4) 조미연, 「『三國遺事』 「孝善」篇 研究」 『國文學論集』17(2000); 엄선용, 「『三國遺事』 「孝善」篇 分析 研究」 『漢字漢文教育』21집(2008).

5) 김영하, 「『三國遺事』 孝善篇의 이해」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30(2009).

6) 효선편 각 편목에 대한 최근 연구는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30(2009)이 있다.

는데, 진정과 대성의 이야기는 부모를 위해 출가를 하거나 불사를 짓는 등의 불교적 요소가 강한 반면에 향득의 이야기는 주인공이 국가로부터 표창을 받는 유교적 요소가 강하다. 그리고 진정과 대성의 이야기는 정치와 결합되는 요소가 향득의 이야기에 비해 그 비중이 낮다.

향득은 신라사회의 첫 표창 사례이며, 이것으로부터 손순과 빈녀까지의 표창이 이어진다. 향득이 행한 할고고행이 불교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⁷⁾ 출가나 불사 등과 같은 대표적인 불교적 행위는 나타나지 않아, 다른 설화들과 차이가 있다.

한편, 신라의 효는 경덕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 경덕왕 이전의 효행은 충효양전론과 믿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경덕왕대에는 당 현종이 주석한 『효경』이 신라에 유입되면서, 효를 실천하여 국가와 군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도록 이끌었다. 그리하여 신라 중대부터 효가 유교적 덕목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정치와 가정윤리에서도 부각되었다.⁸⁾ 孝라는 가장 기본적 가정윤리가 사회안정의 일환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향득의 표창을 통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나, 진정과 대성의 이야기에서부터 봐도 사회적으로 효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진정과 대성의 이야기는 불교와 효의 교류를 보여주는 것이고, 향득의 이야기에는 효의 사회화를 반영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효행을 표창함으로써 충심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하대의 효는 중대의 효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일까.

효선편 가운데 하대를 배경으로 하는 설화는 손순과 빈녀의 이야기가 있다. 손순의 경우에는 효를 행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묻고자 했고, 빈녀는 효를 행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팔아 노비가 되었다. 중대

7) 김수태, 「『삼국유사』 ‘향덕사지’ 조로 본 신라인의 효행」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30(2009).

8) 노용필, 『韓國古代社會思想史探究』(韓國史學, 2007). p.240.

의 진정과 대성, 향득 모두 가난으로 인해 부모를 모시기 어려운 상황 이었고, 그 해결책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 놓는다. 마찬가지로 손순과 빈녀 역시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극단적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향후 불사를 완공하여 불교적 요소를 보이고 있다. 중대의 이야기와 다른 점은 그들의 극단적 효행이 국가의 포상과 표창을 이끌어 내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중대와 하대의 효행은 그 행위의 극단성과 행위자들이 말미에는 불교에 귀의한다(향득제외)는 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포상과 표창 등에서 볼 때 차이점도 있다. 그럼에도 중대의 효가 『효경』을 통해 충과 연결되는 요소가 부각되었다면, 하대의 효는 어떠한 지 손순매아조와 빈녀양모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두 설화의 대한 연구사는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손순매아 설화’는 경북·경남·경기·강원·충북·전남 등 현재 확인 가능한 전국 각지에서 전승될 정도로 구전되어 온 분포가 넓다.⁹⁾ 그 내용은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자식을 묻는다는 것으로, 이러한 ‘손순의 효’를 흥덕왕대 정치와 연결하여 당시 사회적 불안 속에서 효를 선양하여 개별가호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기도 했다.¹⁰⁾ 그리고 ‘손순매아 설화’는 불교와 유교 양자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신라인의 효지상주의적 관념을 보여준다고 하였다.¹¹⁾ 또한 설화적 전승에 초점을 맞춰 ‘손순매아 설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¹²⁾

‘빈녀양모 설화’는 『삼국유사』 효선편 가운데 주인공이 유일하게 여

9) 임재해, 「손순매아 설화의 전승현장과 전승상황」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11(1990), p.242.

10) 김기섭, 「신라 흥덕왕대 孫順의 孝를 통해 본 ‘表彰’의 의미」 『韓國中世史會의 諸問題』(韓國中世史學會, 2001).

11) 정운용, 「『三國遺事』 ‘孫順埋兒’條로 본 新羅人的 孝心」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30(2009).

12) 노영근, 「<손순매아>유형의 분포와 해석」 『온지논총』26(2010).

성으로 『삼국사기』 열전에 수록된 효녀지은과 같은 내용이다. 설화에 대해서는 신라하대 골품제와 왕경인의 주거를 살피는 과정에서 언급되었고,¹³⁾ 진성왕대의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정치사적 관념으로도 연구되었다.¹⁴⁾ 또한 어머니의 養口보다 養志를 중시하여 효와 선을 극적으로 잘 드러낸 항목이라고 보기도 했다.¹⁵⁾ 그리고 여성이 효행의 주체였기에 개별연구뿐만 아니라 신라시대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로 등장하기도 하였다.¹⁶⁾

‘손순매아’와 ‘빈녀양모’는 효선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같은 맥락을 가진 설화로 구분되었다. 효도로 인하여 현세적인 福을 받고 佛道에 귀의한 이야기이거나,¹⁷⁾ ‘유교적 효행을 매개한 은사·희사형 설화’로 파악되었다.¹⁸⁾ 이러한 분석이 신라 하대 효를 대변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하대를 배경으로 하는 다른 효행사실이 있었을 텐데 이들만 포상 받고, 표창된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한 두 설화에서 불사를 통해 불교에 귀의하는 것을 단순하게만 파악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孫順埋兒條와 貧女養母條를 통해 효행에 대한 포상과 표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설화에 등장하는 사찰들을 통해 효 관념이 신라 하대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유추해 보고자 한다.

13) 이종욱, 「신라하대의 골품제와 왕경인의 주거」 『新羅文化』7(1990).

14) 전기웅, 「眞聖女王代の 花郎 孝宗과 孝女知恩 說話」 『韓國民族文化』25(2005).

15) 조범환, 「『三國遺事』 ‘貧女養母’條에 나타난 知恩의 효성」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30(2009).

16) 이형우, 「『三國史記』列傳을 통해 본 新羅의 女性」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25(2004); 최정선, 「『삼국유사』 효선에 나타난 불교와 이상적인 여성상」 『불교학연구』10호(2005).

17) 이기백, 1986, 앞의 책, p.282.

18) 김영하, 2009, 앞의 논문, p.23.

II. 孫順埋兒條 분석

손순매이는 『삼국유사』 효선편 가운데 네 번째로 수록되었다. 그 제목은 ‘손순매아홍덕왕대’로 홍덕왕대 이야기임을 명시하고 있다. 상세한 손순매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① 孫順者(古本作孫舜) 牟梁里人 父鶴山 父沒 與妻同但作人家 得米穀養老孃 孃名運烏
- 가-② 順有小兒 每奪孃食 順難之 謂其妻曰 兒可得 母難再求 而奪其食 母飢何甚 且埋此兒 以圖母腹之盈 乃負兒歸醉山(山在牟梁西北)北郊 掘地忽得石鐘 甚奇 夫婦驚怪 乍懸林木上 試擊之 春容可愛 妻曰 得異物 殆兒之福 不可埋也 夫亦以爲然 乃負兒與鐘而還家 懸鐘於梁扣之 聲聞于闕 興德王聞之 謂左右曰 西郊有異鐘聲 清遠下類 速檢之
- 가-③ 王人來檢其家 具事奏王 王曰 昔郭巨瘞子 天賜金釜 今孫順埋兒 地湧石鐘 前孝後孝 覆載同鑑 乃賜屋一區 歲給粳五十碩 以尙純孝焉
- 가-④ 順捨舊居爲寺 號弘孝寺 安置石鐘
- 가-⑤ 眞聖王代 百濟橫賊入其里 鐘亡寺存 其得鐘之地 名完乎坪 今訛云枝良坪

설화의 내용은 총 5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손순이라는 인물에 대한 소개와 효행과 돌종의 발견. 그리고 홍덕왕의 포상과 弘孝寺 건립. 마지막으로 설화가 있는 지명에 대한 일연의 분석이다.

손순의 신분에 대해서는 평민으로 보는 견해¹⁹⁾와 6두품으로 보는 견해²⁰⁾가 있는데, 설화 내용에서 보듯이 庸作을 하는 것으로 보아 손순은 왕경에 거주하는 평민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모두 언급된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그만큼 손순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남아있었다는 것이고, 더불어 일연이 그 내용에 대해

19) 김기섭, 2001, 앞의 논문, p.405; 김영하, 2009, 앞의 논문, p.21.

20) 이기백, 「新羅 六頭品 研究」 『省谷論叢』2(1971): 「新羅政治社會史研究」(일조각, 1974). p.55; 노용필, 2007, 앞의 책, p.237.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손순의 정보가 상세히 남아있었던 것은 그만큼 손순이 행한 孝가 오랫동안 회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손순의 효행은 가-②를 통해 알 수 있다. 손순의 이야기는 가난으로 인해 노모와 아이를 모두 풍족하게 먹이지 못해 생긴 일이다. 이를 통해 흥덕왕대 용작민의 존재형태를 알 수 있다.

丁男과 丁女로 추정되는 손순 부부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얻은 곡식으로는 기본적인 생계조차 잇기 어려웠다. 용작민은 생계를 이으려고 생활 근거지를 옮겨 유망민이 되거나 초적이 되기도 했다. 헌덕왕대 유망민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초적이 집단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용작민의 빈궁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²¹⁾

결국 노모를 제대로 봉양하기 위해 아이를 묻기로 한 손순과 이에 동조한 아내는 곧 돌종²²⁾의 발견으로 埋兒를 포기한다. 여기서 ‘돌종의 발견’을 불교적 윤색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꿈에서 일어난 일을 실제처럼 기록했다는 것이다.²³⁾

그러나 설화 전체에서 돌종의 역할은 크다.²⁴⁾ 중은 불교 의례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신성한 존재이다.²⁵⁾ 설화에서는 돌종의 등장으로 아이가 묻히지 않았고, 돌종의 신이한 소리로 인해 흥덕왕이 손순을 찾게 되었다. 손순의 효행에 대해 왕이 먼저 알고 포상한 것이다. 이것은 설화의 극대화를 위한 장치일지는 모르나, 후에 살펴볼 빈녀의 효행이 드러난 방향과는 다르다. 빈녀의 이야기는 마을을 지나던 낭도들에게서 효종에게, 그다음 진성왕에게 전해졌지만, 손순의 이야기에서는 손

21) 具山祐, 「신라말 향촌사회의 변동과 새로운 계층구조의 형성」 『韓國中世史會의 諸問題』 (韓國中世史學會, 2001). pp.446-447.

22) 손순이 돌종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경돌 혹은 요령을 발견했다고 보기도 한다(임재해, 1990, 앞의 논문, p.258).

23) 김기섭, 2001, 위의 논문, p.412.

24) 돌종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운용, 2009, 앞의 논문, p.138과 엄선용, 「『三國遺事』 「孝善」 篇 分析 研究」 『漢字漢文教育』 21집(2008). pp.468-469 참조.

25) 조미연, 「『삼국유사』 효선편 고찰」 『삼국유사의 문학적 탐구』(이회문화사, 2008) 참조.

순과 흥덕왕이 바로 연결된다. 손순의 상세한 포상 과정은 생략되었지만, 분명 손순이 사는 마을에서 그의 이야기가 상소를 통해서 왕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설화는 손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흥덕왕이 먼저 알고 조치를 취한다는 맥락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이는 흥덕왕대 구휼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이 『삼국사기』 흥덕왕대 기사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八年, 春, 國內大飢

九年, 冬十月, 巡幸國南州郡, 存問耆老及鰥寡孤獨, 賜穀布有差

흥덕왕 8년에 기근이 있고 난후 구휼정책이 시행된다. 흥덕왕의 정책은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손순이 거주하는 모량리는 경주 西面に 위치하고 있다. 또한 손순의 가정은 가난했지만 庸作거리가 있었으며, 노모를 부양하는 손순부부가 있었다. 이처럼 손순은 왕의 위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위문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손순의 효행이 전해졌을 것이다. 그리하여 손순의 포상 역시 구휼정책이 있었던 흥덕왕 9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²⁶⁾

흥덕왕은 자식을 버리면서까지 부모를 봉양하고자 한 손순의 효를 높이 평가하였다. 가-③에서 보듯이 郭巨의 사례와 비교하며 손순을 높이 평가했다.

곽거는 후한대 사람으로 그의 효행은 손순과 유사하다. 곽거 부부는 가계가 어려웠으나, 모친을 지극히 모셨다. 후에 남자아이가 태어나 어머니의 음식을 뺏어먹는 것을 보고, 아이를 묻을 결심을 하게 된다. 아이를 묻기 위해 땅을 파는 와중에 황금 술을 발견하게 된다.²⁷⁾

26) 손순의 일이 일어난 시기에 대해 김기섭(2001, 앞의 논문, p.411)은 흥덕왕 8년으로 보았다. 대기근이 일어난 시기였기에 손순의 사례가 등장했을 것으로 생각되나, 손순의 사례가 왕에게 포상받는 시기는 다음해로 생각된다. 더불어 손씨대동보나 비문에서는 흥덕왕 9년이라 명시되어 있다(임재해, 1990, 앞의 논문, p.241).

27) 곽거의 효행이 기록되어 있는 사서로는 『수신기』와 『蒙求』가 있다. 『몽구』는 당나라때 만

곽거와 손순의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나라에서 내린 포상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황금술과 돌종으로 대변되는 하늘의 감응을 받았다는 특징이 있다.²⁸⁾

그렇다면 평민인 손순의 효를 흥덕왕이 포상한데에는 이유가 있었을까? 이는 흥덕왕이 손순에게 하사한 물품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흥덕왕은 손순에게 ‘賜屋一區 歲給粳五十碩’을 주었다. ‘屋’은 주거가 가능한 집으로 손순이 노모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집으로 보인다.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가옥을 하사받은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해마다 메벼 50석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손순이 포상 받은 지 2년 뒤 흥덕왕이 사망하는데, 흥덕왕 재위동안만 매년 50석을 받았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흥덕왕 사후에도 계속해서 곡식을 받았을까?

한편 손순이 받은 50석은 향덕과 빈녀가 받은 포상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양이었다. 차이가 있다면 ‘歲給’이라는 것이다. 손순의 포상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포상으로 인해 손순의 가계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것이다. 50석을 매년 지원받은 것은 자신이 일한 노동의 대가와는 별개의 수입이었고, 이것은 1회에 500석을 받는 것과는 달리 가계안정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손순은 포상을 받고는 자신이 살던 옛집을 회사하여 弘孝寺를 만든다. 이것이 가-④의 내용이다. 애장왕대 새로운 불사를 금지하는 조항²⁹⁾이 생긴 이후 만들어진 사찰이고, 양인의 신분으로 왕경근방에 사찰을 만들어 세간의 이목을 끌었을 것이다. 그런데 양인의 신분으로 사찰을 만들고,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는 중대말 불사활동의 사례

들어진 사서이며(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下)』(민족사, 2005), p.526.), 『수신기』는 『삼국유사』와 비교되는 중국·한국의 초기 서사문학사 가운데 효행담 모음집이다(김대현, 『『搜神記』와 『三國遺事』의 孝行談에 대한 비교 고찰』 『아시아문화』15(2000), p.226.)

28) 김대현, 2000, 위의 논문, p.227.

29)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애장왕 7년조.

를 통해 알 수 있다. 사원관리를 위해 본인 혹은 가족이 출가하거나, 시주와 관계있는 승려가 관리하도록 하였다. 경제기반으로는 토지 등을 시납하기도 하였다.³⁰⁾

사찰 조성에는 어떤 계기와 조성 및 운영자금이 있어야 했을 것이다. 돌종의 등장으로 자신의 孝行이 드러나, 포상을 받은 것에 감격한 일이 사찰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조성 및 운영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였을까? 이때 자금이 흥덕왕으로부터 지급된 歲給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50석이 4인 가족을 먹이는데, 부족한 양일지도 모르나, 부모를 기리는 마음으로 불사를 추진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흥덕왕의 포상으로 홍효사가 조성되었지만, 불사를 결심한 것은 손순의 의지였다. 그렇다면 손순은 어떤 의도로 불사를 추진하였을까? 불사를 만드는 의미는 다양하지만, 손순의 경우는 자신과 부모의 구복을 위한 개인적 이유로 불사를 지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불사를 통해 손순은 부모와 더불어 자신의 성불을 추구하였을 것이다. 왕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것을 넘어 내세를 위해 사찰을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대성의 사례에서 보듯이, 현세의 복이 내세에 반영됨을 손순도 믿고 있었던 것이다.

손순이 지은 사찰의 명칭은 홍효사로 ‘효를 널리 알린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弘孝寺라는 사찰명을 누가 지었을까 하는 것이다. 홍효사를 통해 손순매아조는 불교와 연결되는데, 사찰명을 지은이가 손순일지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손순의 학문적 소양에 대해서는 기재된 바가 없다. 그러나 용작으로 생활을 유지하였던 것을 감안하다면, 홍효사라는 이름을 짓는 것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弘孝寺라는 사찰명은 누가 지었을까? 설화 내용 중에 손순과 흥덕왕이 직접 연관되는 것

30) 광승훈, 『통일신라시대의 정치변동과 불교』(국학자료원, 2002), pp.70-77.

으로 보아 흥덕왕이 사찰명을 지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흥덕왕 9년에 손순이 포상을 받아 옛 집을 회사하였고, 그 절의 이름을 흥덕왕이 내려준 것이다.

弘孝寺라는 명칭을 통해, 흥덕왕이 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

신라에서 孝는 『효경』의 도입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효경』은 국학에서 필수 과목이었으며 독서삼품과에서도 중시된 과목이었다. 원성왕대 독서삼품과를 설치하여 시험과목에서 『효경』을 중시하였던 것은, 관리로 진출하려는 예비 관료군에게 군주에 대한 충성을 효과적으로 강조하려는 시도였다.³¹⁾ 이처럼 『효경』에 대한 교육을 중시하고, 유교적인 효행을 실천한 이들에 대해 포상한 것은 효를 강조하여 국가와 군주에 대한 충을 유도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³²⁾

또한 『효경』의 영향으로 사회적으로는 孝를 중시하는 풍토가 존재했고, 흥덕왕은 손순의 사례를 이용해 효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흥덕왕이 효를 강조하고자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흥덕왕은 헌덕왕 사후 50세의 나이로 즉위하였다. 재위 3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9년에는 진골이하 6두품·5두품·4두품·平人에 대한 신분등급별 풍속관계가 규정된 교서를 내렸다.³³⁾ 이 같은 교서를 내린 의도는 중국 황제의 지위에 대응하는 초월적 존재로서의 국왕 지위 창출에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다. 즉, 흥덕왕의 이러한 조치들은 왕권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⁴⁾

흥덕왕이 손순의 사례를 치하한 것도 왕권강화의 일환이었다. 효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개별가호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효에 대한 포상을

31) 김기섭, 2001, 앞의 논문, p.407.

32) 노용필, 2007, 앞의 책, p.244.

33) 『삼국사기』 권33, 잡지2, 色服·車騎·器用·屋舍.

34) 권영오, 『新羅下代政治史研究』(혜안, 2011), pp.148-149.

통해 백성을 교화하고자 한 것이다.³⁵⁾ 홍덕왕은 손순의 사례를 통해 효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국가안정의 일환으로 이용한 것이다. 弘孝寺는 이러한 홍덕왕의 의도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명칭이라 하겠다. 홍효사를 통해 홍덕왕은 『효경』에서 효가 충도의 근간임을 강조한 것³⁶⁾을 되새기 고자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부모와 군주를 동일시하는 효의 개념을 다시금 상기시켜 왕에게 충성하도록 의도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가-⑤의 내용은 홍효사에 안치되었던 돌종에 대해 언급 하고 있다. 돌종이 사라진 경위에 대해 ‘百濟橫賊’의 소행이라 하였으 나, 진성왕대 후백제 세력의 침입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진성 왕 10년 赤袴賊이 牟梁里에 이르러 民家를 劫掠하여 갔다는 기록³⁷⁾으 로 보아 홍효사에 침범한 세력은 적고적으로 보인다. 『삼국유사』의 내 용이 『삼국사기』와 차이가 있지만, 사실성이 부각되는 것은 돌종의 발 견 위치이다. 발견위치가 와전되어 전하고 있다는 내용을 통해 돌종의 출토지역까지 언급하여 일연은 손순의 사례가 사실임을 강조했다.³⁸⁾ 한 편 돌종이 약탈된 것을 통해 홍효사가 정치적·경제적 기반이 약했다 고 파악하는 연구도 있다.³⁹⁾

홍효사는 손순이라는 양인이 내세구복을 위해 지은 사찰이나, 홍효 사라는 명칭을 홍덕왕으로부터 받음으로써 그 위상이 높아졌을 것이 다. 그러나 홍덕왕 사후, 사찰은 명맥만을 유지하는 수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손순매아조를 분석해 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손순의 효 행은 부모를 위해 자식을 묻겠다는 것으로, 철저히 부모 위주의 효행

35) 김기섭, 2001, 앞의 논문, p.411.

36) 노용필, 2007, 앞의 책, p.222.

37) 『삼국사기』권11, 신라본기11, 진성왕 10년조.

38) 하일식, 「『삼국유사』의 貧民관련 자료에 대하여」 『일연선사와 삼국유사』 일연학연구원 국 제학술발표대회 자료집(2006). p.97 참조.

39) 곽승훈, 200, 앞의 책, p.70.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효선편에 수록된 다른 효행방식과는 다르다. 손순의 선택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부모를 위해 자식까지도 버릴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埋兒라는 극단적 방법을 통해 효를 실천하고자 한 것은 손순의 입장이 그만큼 절박했음을 알 수 있다. 손순의 埋兒에 대해서는 당시 극심한 기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 축소’의 방법을 드러냄으로써, 영아유기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문학적으로 풀어낸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리하여 효행이란 이념을 설화에 개입시켜 埋兒를 결심한 행동을 비롯한 잔인한 행동들이 모두 효행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합리화를 부여했다고 보기도 한다.⁴⁰⁾

손순의 효행은 흥덕왕에게 포상 받은 사실로 인해 ‘유교적 효행’을 나타내는 설화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손순의 행동은 ‘불교적 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부모를 위해 자신의 자식을 희생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모를 위하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인데, 부모는 내가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였기에 부모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孝의 한 모습이기 때문이다.⁴¹⁾

불교적 효행에 가까운 손순의 埋兒는 돌종의 등장으로 무산되었다. 결국 효를 행하기 위해 손순은 시도만 했을 뿐, 극단적 행동을 취하진 않았다. 그럼에도 흥덕왕이 손순을 치하한 것은 자식보다는 부모를 섬기는 孝를 왕권강화와 연결 짓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손순의 효행은 홍효사로 귀결되는데, 홍효사를 통해 흥덕왕은 충은 강조하고, 손순은 내세안정을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40) 노영근, 2010, 앞의 논문, p.137.

41) 정수동, 「유교와 불교의 효사상」 『동아시아불교문화』7권(2011), p.274.

Ⅲ. 貧女養母條 분석

빈녀양모조는 『삼국유사』 효선편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다. 빈녀양모는 『삼국사기』 열전에 수록된 ‘효녀지은’조와 같은 내용이다. 빈녀의 효행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⁴²⁾ 빈녀양모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① 孝宗郎遊南山鮑石亭(或云三花迹) 門客星馳 有二客獨後 郎問其故 曰 芬皇寺之東里有女 年二十左右 抱盲母相號而哭 問同里 曰 此女家貧 乞啜而反哺有年矣 適歲荒 倚門難以藉手 贖賃他家 得穀三十石 寄置大家服役 日暮囊米而來家 炊餉伴宿 晨則歸役大家 如是者數日矣 母曰 昔日之糠粃 心和且平 近日之香秬 膈肝若刺而心未安 何哉 女言其實 母痛哭 女嘆已之但能口腹之養 而失於色難也 故相持而泣 見此而遲留爾
- 다-② 郎聞之潸然 送穀一百斛 郎之二親亦送衣袴一襲 郎之千徒 斂租一千石遺之 事達宸聽 時眞聖王賜穀五白石 并宅一廛 遣卒徒衛其家 以儆劫掠 旌其坊爲孝養之里
- 다-③ 後捨其家爲寺 名兩尊寺

빈녀양모의 내용은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효행의 일화와 그 포상 및 표창 그리고 양존사를 지은 내용으로 구분된다.

빈녀의 이야기는 효종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貧女養母라 하여 가난한 여자가 어머니를 봉양한 내용을 주제로 하지만, 그 내용에서 강조되는 것은 효종랑이다. 또한 빈녀의 효행이 진성왕에게 전해져 귀감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효종랑의 포상 때문이었다. 『삼국유사』를 기준으로 빈녀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과정을 보면, 빈녀의 사건을 同里가 알고는 門客에게 전하였고, 이 門客이 효종랑에게 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효종랑은 누구인가? 효종랑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

42) 조범환, 2009, 앞의 논문, p.154.

다. 『삼국사기』 열전에 수록된 효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孝宗, 時第三宰相舒發翰仁慶子, 少名化達, 王謂雖當幼齒便見老成, 卽以其兄憲康王之女妻之

효종의 아버지인 인경이 당시 第三宰相으로 불리었던 것으로 보아 상당한 세력을 가진 진골귀족이었음을 알 수 있다.⁴³⁾ 효종은 孝恭王 6년에 侍中의 지위에 올랐다.⁴⁴⁾ 그는 효공왕 요의 등장과 신덕왕 경휘와의 경쟁에서 밀려 스스로 왕위에는 오르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헌강왕녀인 桂娥太后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 金傳는 경애왕이 견훤에게 살해된 후 견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오르니, 신라의 마지막 왕인 敬順王이다.

효종이 정치적으로 부각된 것은 빈녀 사건부터였다. 효종은 왕경의 빈민층인 빈녀의 구휼을 통하여 자신의 덕행을 널리 선전하고, 그가 이끌던 화랑세력의 힘과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진성왕의 뒤를 잇는 후계자로 자신의 위치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⁴⁵⁾

빈녀의 사건으로 효종이 정치적으로 부각되었다고 하나, 빈녀의 사건은 진성왕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다.

진성왕은 정강왕의 유조로 즉위하였으나, 여왕 즉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불만세력을 포섭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그리하여 죄인을 大赦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황룡사에 친행하여 불교를 통한 사상적 안정을 구하였다. 그리고 『삼대목』을 편찬하여 여왕 즉위의 정당성을 홍보하고,⁴⁶⁾ 유교주의적 중앙집권체제의 국가운영을 정국운영의 지표로 삼고

43) 조범환, 「新羅末 花郎 勢力과 王位繼承」 『史學研究』 57집(1999), pp.31-33.

44)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효공왕 6년 3월조.

45) 효종탕에 대해서는 전기웅, 「신라하대의 화랑세력」 『신라문화』 10·11합집(1994), pp.9-13 참조.

46) 권영오, 2011, 앞의 책, pp.238-239.

자 하였다.⁴⁷⁾ 또한 진성왕은 즉위하여 전국 諸州郡에 1년간 조세를 면제했다.⁴⁸⁾ 죄수들에게 대사면령을 내린 것과 함께 취해진 이 조세감면 조치는 민심을 회유하고 여왕의 즉위를 경사스럽게 여기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⁴⁹⁾

진성왕 즉위년과 2년에 걸쳐 나타난 이러한 행적 가운데 빈녀의 포상과 표창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빈녀의 표창은 같은 여성인 진성왕의 입지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빈녀의 행동은 어머니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며, 딸의 희생을 알게 된 어머니의 하소연이 이야기의 주된 맥락이다. 이처럼 이 설화의 주요인물은 모두 여성이며, 여성으로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이 주변 사람의 감동을 일으켰다는 것을 진성왕은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빈녀는 어머니를 위해 자신을 팔아 곡식을 마련했다.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빈녀는 어머니를 위해 밤에는 집에 돌아갔다가, 낮에는 주인집에서 일을 했다. 출퇴근형으로 보이는 빈녀의 상황은 大家가 빈녀의 상황을 알고 그녀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⁰⁾

효행에 대한 포상과 표창은 다-②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삼국사기』 열전 효녀지은조에는 포상과 표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마-時孝宗郎出遊見之 歸請父母 輸家粟百石及衣物予之 又償買主以從良 郎徒幾千人 各出粟一石爲贈 大王聞之 亦賜租五百石家一區 復除征役 以粟多恐有剽竊者 命所司差兵番守 標榜其里曰孝養坊 仍奉表 歸美於唐室

47) 송은일, 「眞聖女王 『三代目』의 修撰」 『역사학연구』 27(2006), pp.100-101.

48)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11, 진성왕 즉위조.

49) 전기웅, 2005, 앞의 논문, p.19.

50) 전기웅, 2005, 위의 논문, p.9.

빈녀에게 포상한 곡식양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잡역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삼국사기』에 추가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효종에게서 시작된 포상이 진성왕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효종량은 자발적으로 곡식 100斛을, 효종의 부모는 자식의 권유로 옷을 기부했다. 더불어 낭도들은 1섬씩 모아 기부를 했고, 나아가 진성왕도 빈녀에게 포상한다.

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진성왕이 빈녀에게 하사한 집이다. 『삼국사기』는 ‘家’로, 『삼국유사』는 ‘塵’이라 표현되었다. 사료에 제시된 한자어가 동일한 뜻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빈녀가 하사받은 ‘塵’은 왕경내 집이란 뜻과 ‘가게’란 뜻도 가지고 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빈녀가 받은 집이 중심가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다시 말해 주변 유동이 많은 곳의 집을 빈녀에게 하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진성왕은 효양방의 칭호를 완전히 기존 거주지와 관련 없는 새로운 공간에 내리진 않았을 것이고, 분황사 동리인 빈녀의 원거주지에 효양방이란 명칭과 함께 집을 하사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빈녀는 원거주지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받을 수 있는 공간에 새로운 터전을 잡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문객이 전한 이야기 속의 빈녀는 ‘芬皇寺 東里’에 거주했다. 빈녀의 거주지명에 분황사가 언급된 것을 두고, 이곳이 당시에는 불교적 신심으로 궁핍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겨졌다고 보기도 한다.⁵¹⁾

현재 분황사 동쪽은 九黃路 건너편으로 넓게 펼쳐진 농경지와 普門洞 南村 마을을 지나 明活山이 우뚝 솟아 있다.⁵²⁾ 이곳에서 현재까지 마을 유적은 확인되지 않아, 빈녀가 거주했던 분황사 동리에 대해서는

51) 최정선, 2005, 앞의 논문, p.163.

5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분황사 발굴조사보고서 I』(2005), p.29.

그 실체가 모호하다. 빈녀의 생활공간인 芬皇寺 東里에 대해서는 『삼국유사』 기이편 진한조에 기술된 자료가 눈에 띈다.

바-新羅全盛之時, 京中十七萬八千九百三十六戶, 一千三百六十坊, 五十五里, 三十五金入宅(言富潤大宅也), …中略… 北維宅, 南維宅(反香寺下坊), 隊宅, 賓支宅(反香寺北), …中略… 板積宅(芬皇寺上坊), …中略… 楡南宅, 井下宅.

금입택 사료는 현강왕대의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⁵³⁾ 芬皇寺上坊은 분황사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는 빈녀의 원거주지인 분황사 동리와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東里와 孝養坊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坊과 里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방과 리를 병렬적인 행정단위로 파악하여, 왕기인 6부에는 리가, 왕도에는 방이 구획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⁵⁴⁾ 이와 달리 坊은 신라 중대에 규격화된 왕경의 일정한 구역을 가리키는 행정단위로 기능하였으나, 하대에 들어 里아래 단순한 행정단위를 지칭하는 것이 되었다고 보기도 한다.⁵⁵⁾

한편으로 坊을 方과 같은 의미의 네모난 일종의 규격화된 단위로 보아, 행정적 하위 단위보다는 단순한 도시구획의 기초단위로 보기도 하였다. 왕경의 중심구역에는 행정단위로서 부-리와 도시구획인 坊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주변지역에는 방이 설정되지 않았으며, 리의 아래에는 마을별로 村이란 단위가 존재하였다. 그리하여 방은 단순히 구획일 뿐 행정적 기능은 없다고 보았다.⁵⁶⁾

1987~2002년까지 조사된 황룡사지 동쪽의 왕경유적은 하나의 坊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황룡사지 동쪽 방 내부에는 18개 가

53) 이기동, 「新羅 金入宅考」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일조각, 1984), p.185.

54) 이종욱, 1990, 앞의 논문, pp.10-11.

55) 전덕재, 『신라 왕경의 역사』(새문사, 2009), p.156.

56) 주보돈, 「『三國遺事』 ‘念佛師’條의 吟味」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31(2010), pp.37-40.

옥이 확인되었고, 방의 외곽은 직선도로와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왕경에 설치된 방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⁵⁷⁾ 방의 크기가 모두 동일하지 않고, 다양하게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보고자들의 설명에 따라 坊이 왕경의 행정 기능 없이 도시 구획을 위한 기초단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도시 구획을 위한 단위였다면, 구획의 크기가 동일하거나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그러한 것들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라왕경에는 6部 아래에 里가 존재하고 그 내부에 여러 개 坊이 존재했다. 고대 중국이나 일본에서 里·방제 또는 조방제를 실시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수도 주민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였다.⁵⁸⁾ 신라 하대에도 이 기능은 유효했을 것이다. 분황사상방·반향사하방과 같은 명칭에서 효양방이라는 개별 명칭이 등장하게 된 것은 해당 지역에 대한 통제력과 특수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빈녀는 거주하던 집을 회사하여 ‘兩尊寺’를 만든다. 이것이 다-③의 내용이다.

순순은 자신의 옛집을 회사하였으나, 빈녀가 회사한 집은 자신이 모친과 함께 거주할 공간이었다. 그리하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집을 내어 양존사로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시점은 진성왕 11년쯤으로 생각된다.

진성왕 11년에는 양위를 알리기 위해 당나라로 서신을 보낸다. 진성왕대 처음으로 있었던 당나라 방문이었고, 이때 빈녀의 사례도 알려졌다. 이 내용은 『삼국사기』 열전에 나타난다. 효종릉을 통해 알려진 빈녀의 일이 당나라에까지 알려지게 된 것이다.

빈녀는 자신의 효행으로 받은 현세의 복이 내세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불사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빈녀가 회사한 양존사란 사찰명은 누가 지었을까? 빈녀가 자신의 집을 회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

57) 전덕재, 2009, 앞의 책, pp.140-144.

58) 전덕재, 2009, 위의 책, p.151.

지만, 손순과 마찬가지로 빈녀가 직접 사찰명을 지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효종과 진성왕 가운데 효종이 빈녀와 더 밀접⁵⁹⁾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찰명을 짓는 과정에도 효종의 영향력이 발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兩尊寺’의 의미에 대해서는 ‘兩尊’이란 ‘兩足尊’의 줄임말로 『法華經』 「方便品」에 ‘無上兩足尊 願說第一法’이라 하였다.⁶⁰⁾ 이는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기 위한 말로 부처님이 지혜와 복 두 가지를 겸비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빈녀가 養口만이 효가 아니라 養志가 우선되어야 함을 깨달아 복을 받았기에 빈녀의 지혜와 복, 즉 양존을 기리기 위해 사찰명을 양존사라고 한 것으로 보았다.⁶¹⁾ 또한 ‘兩尊寺’를 빈녀의 양친을 기리는 뜻으로 보기도 했다.⁶²⁾

그러나 ‘양존’을 『법화경』과 연결해서 해석하기보다 오히려 말뜻 그대로 두 사람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로는 현재 양존사 사찰의 성격은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인의 신분으로 만든 사찰이 종교적 역할을 했다 하기 보다는 개인 구복적 성격이 강한 사찰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찰명에서도 개인적인 관심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효종은 여성으로 효행을 행한 빈녀의 행동과 더불어 빈녀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감동했다. 자식이 효를 행하기 위해 노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니의 눈물로서 자식은 養志를 깨달았다. 결국 빈녀의 효행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처럼 사찰 건립은

59) 전기웅은 효종과 빈녀가 직접 연결되지 않고, 두 낭도라는 매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보았다(2005, 앞의 논문, p.9).

60) 檀國大 東洋學研究所 編, 『漢韓大辭典』2(1999), p.140. 그런데 여기서는 兩尊을 ‘兩足尊’의 줄임말인 듯 하다고 하였다.

61) 조미연, 「『三國遺事』 「孝善」篇 研究」 『國文學論集』17(2000), p.214; 조범환, 2009, 앞의 논문, p.175.

62) 김수태, 2009, 앞의 논문, p.111.

빈녀의 잘못된 효행에 가슴 아파한 어머니로 인해 자식이 큰 깨달음을 얻은 것과 진성왕이 효종랑을 정치적으로 발굴해 준 것을 같이 기리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 두 사람을 높이는 의미에서, 사찰명을 양존사라 지은 것이 아닐까 한다.

빈녀의 효행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유교적 효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빈녀의 효행은 효종과 진성왕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부각되었고, 포상과 표창을 받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행해진 ‘양존사’의 건립은 빈녀의 의도였지만, 그 사찰명에는 부모와 군주를 같은 반열에 놓고 해석한 지배층의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할 수 있다.

IV. 신라하대 孝行

앞에서 孫順埋兒와 貧女養母에 대해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효행담의 불교적 결과는 사찰을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유교적 결과로는 비석, 旌門, 마을이름을 새롭게 붙이는 경우 등이 있다.⁶³⁾ 손순의 경우 불교적 결과만이 보이지만, 빈녀는 불교적 결과와 유교적 결과가 동시에 나타난다.

효선편의 다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진정사효선쌍미의 진정은 출가하며, 대성효이세부모신문대의 대성은 불국사와 석굴사를 만들어 불교적 결과를 보인다. 향덕사지할고공친경덕왕의 향득은 『삼국유사』의 내용상으로는 불교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할고 고행이 불교와 연결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⁶⁴⁾ 그런데 『삼국사기』에서는 비석을 세우는 등 유교적 결과가 강조되었다.

일연은 향득의 표창을 효선편에 기재하지 않은 반면에, 빈녀에 대해서는 표창과 양존사 건립을 기재하였다. 이러한 서술의 차이는 일연의

63) 김대현, 2000, 앞의 논문, p.240.

64) 김수태, 2009, 앞의 논문, pp.113-114.

윤색이 아니라, 『삼국유사』 효선편을 통해 효행이 현실에만 국한하지 않고, 윤리적 측면과 불교적 大孝⁶⁵⁾를 지향하는 풍토였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⁶⁶⁾

또한 손순과 빈녀의 이야기는 효선편 분석과정에서 효도로 인하여 현세적인 福을 받고 佛道에 귀의한 이야기이거나,⁶⁷⁾ ‘유교적 효행을 매개한 은사·희사형 설화’로 파악되었다.⁶⁸⁾

손순의 사례를 유교적 효행으로 분류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받은 포상 때문이라 할 수 있다.⁶⁹⁾ 하지만 손순의 경우 오로지 부모를 위해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고 했고, 이것은 불교적 효행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빈녀는 ‘色難’을 통해 養志를 깨닫게 된다. 養志의 孝는 기본적으로 養口를 포함하며,⁷⁰⁾ 빈녀의 효행은 유교적 효행이라 할 수 있다.

흥덕왕대 손순에 대한 포상은 효의 이데올로기화를 위한 상징적 연출의 하나였다. 국가는 각 지방에 중앙의 사신을 파견하여 손순에 대한 포상사실을 전파하였을 것이다.⁷¹⁾ 이는 기근으로 힘들어 하던 민들에게 귀감이 되었을 것이고, 손순의 효행은 개별가호의 해체를 막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65) 불교의 효는 小孝와 大孝로 나눌 수 있다. 小孝는 일반적으로 유가에서 이야기하는 봉양과 양지의 효를 단편적이고 철저하지 못한 효로 파악한 것이다. 이에 반해 大孝는 부모를 輪回의 億劫에서 자유롭게 해 드리는 것을 궁극적인 효라고 보았다. 大孝를 이루기 위해 일상생활 중에 부모로 하여금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고 선을 행하도록 돕고 나아가 불경을 읽게 한다든지 출가를 하도록 권하는 것이 큰 효행이 된다고 설파했다(임명옥, 「중국 佛敎系 孝行故事 연구」 『中語中文學』第28集(2001), p.242). 유교에서도 大孝는 나타난다. 『중용』에서는 大孝라야 大聖이 될 수 있고, 大德이 있는 자라야 천명을 받아 천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공자와 맹자는 舜임금을 大孝라 칭하기도 했다(오석원, 「유교의 효사상과 현대사회」 『유교사상 연구』13(2000), pp.370-371.).

66) 정운용, 2009, 앞의 논문, p.142.

67) 각주 17과 동일

68) 각주 18과 동일

69) 향덕의 할고 효행 역시 할고 자체가 유교적 효행이었기 때문에 포상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포상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유교적 효행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김수태, 2009, 앞의 논문, p.98).

70) 조미연, 2000, 앞의 논문, p.205.

71) 김기섭, 2001, 앞의 논문, p.417.

진성왕대 빈녀의 표창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빈녀의 사례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도록 애쓴 것은 왕경인들의 생활이 곤궁하여 왕실과 정치세력에 대한 불만이 점차 고조되어가는 상황과 연관된다. 왕실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몰락해 가는 왕경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써 빈녀의 이야기를 이용한 것이다.⁷²⁾ 이처럼 손순과 빈녀의 이야기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 포상됨으로써 그 가치가 극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손순과 빈녀 설화는 그들이 속한 집단이 孝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기보다는 그들을 안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국가에서 孝를 활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빈녀를 마지막으로 평민에 대한 표창은 사라진다. 이는 진성왕 이후 신라 사회가 붕괴되는 것과 관련 있다. 효행에 대한 표창이 나타나는 것은 국가 통제력이 남아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이를 통해 민의 안정을 추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대를 배경으로 하는 두 설화의 차이를 짚어봄으로써, 孝行에 대한 포상과 표창의 규칙이 있었는가를 살펴보자. 손순과 빈녀 설화를 표로 만들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孫順埋兒	貧女養母
주인공	손순 가족과 母	빈녀와 母
발생시기	興德王	眞聖王
생활방법	용작	걸식 후 贖貨
왕의 포상	賜屋一區 歲給粳五十碩	賜穀五百石 并宅一廬
그의 포상	.	효종량: 穀一百斛 효종량 二親: 衣袴一襲 낭도: 租一千石
표창	.	孝養坊
사찰명	弘孝寺	兩尊寺
수록사서	『삼국유사』	『삼국유사』 『삼국사기』 효녀지은조

72) 전기용, 2005, 앞의 논문, p.18.

먼저, 두 설화의 차이는 표창이다. 손순은 포상만을 받았지만, 빈녀는 포상과 표창을 다 받았으며, 나아가 그녀의 효행은 당에까지 알려졌다.

효행에 대한 표창은 경덕왕대 향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삼국사기』에는 향덕의 일을 비석으로 남기고, 그 마을을 ‘孝家里’로 불렀다고 한다.⁷³⁾ 이러한 표창은 빈녀의 경우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旌을 세우고, ‘孝養坊’이라 하여 그 마을까지도 孝와 연관되도록 했다. 이처럼 빈녀의 ‘효양방’과 향덕의 ‘孝家里’는 孝를 바탕으로 주변 지역과 다르게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자부심이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된다.

할고 효행으로 향덕은 표창 받았으나, 같은 방식으로 효를 행한 성각은 표창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로 보아 표창에 대한 규정이 제도화 내지 규격화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⁷⁴⁾ 그렇다면 향덕과 빈녀가 표창된 이유는 무엇일까?

향덕은 신라 중앙정부가 추구하던 효치주의 정치에 순응하며 실천하려고 최대한 충실히 노력했다. 향덕이 행한 할고 효행을 당나라에서 이미 국가적으로 표창하고 있었기에 신라 정부는 향덕을 표창하게 된다.⁷⁵⁾ 이처럼 표창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국가가 농민을 안정화시키려는 적극적 역할을 포기한 채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사회의 모순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⁷⁶⁾ 즉, 단순한 포상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진성왕대 빈녀가 표창된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효행에 대해 표창하는 것은 포상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73) 『삼국사기』 권48, 열전8, 향덕조.

74) 김수태, 2009, 앞의 논문, p.95.

75) 김수태, 2009, 위의 논문, pp.94-108.

76) 김기섭, 2001, 앞의 논문, p.416.

조선시대에는 전란시 孝를 행한 사람들에게 정표를 실시하고 그들의 행적을 널리 알려 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고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정유재란 중에 정표된 효자의 수가 평시보다 몇 배나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⁷⁷⁾ 시대는 다르지만, 향덕과 빈녀의 사례도 사회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책으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달리 효행을 포상 받은 손순과 성각의 경우는 비록 그들이 속한 지역에 포상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었다 해도, 표창되지 않은 것은 국가 입장에서는 그 지역까지 효행으로 인한 이득을 확대하여 공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신라의 旌表 정책은 효행을 통해 일정 지역을 안정화 시키는 방편으로 이용된 것이다. 포상은 개인에 한정되는 사안이지만, 표창은 里와 坊의 명칭이 바뀌는 것으로 그 지역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라 왕실이 향덕을 통해서는 웅천주 지역을, 빈녀를 통해서는 분황사 동리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 손순과 빈녀 설화는 포상에서도 차이가 난다. 손순은 흥덕왕에게서만 포상을 받았지만, 빈녀는 효종랑과 그 부모, 낭도에게까지 물품을 받았다. 빈녀는 걸식을 포기하고 자신을 팔아 노비가 되는 것과 달리 지배층들은 기부를 할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근과 상관없이 누적되어온 경제문제를 보여준다. 통일신라의 농민들은 대부분 소규모의 토지를 소유하였지만, 확대 재생산이 어려웠다. 이런 상태에서 흉년이 들거나 조세부담이 가중되면, 그들은 고리대를 꾸어 보충했다. 고율의 고리대를 갚지 못하면 유리하거나 몸을 팔아 노비가 되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성덕왕·경덕왕代부터 광범위하게 나타났고, 하대에 들어서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졌다.⁷⁸⁾

77) 박주, 「朝鮮時代 孝子에 대한 旌表政策」 『韓國思想史學』10(1998), pp.310-311.

78) 전덕재, 2006, 앞의 책, p.377.

흥덕왕은 손순에게 해마다 매벼를 50석을 주고, 진성왕은 빈녀에게 500석을 주었다. 1회성으로 끝난 빈녀의 포상과 달리 손순의 포상은 가계 안정과 불사를 만들고 운영하는데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다면 빈녀가 받은 500석이라는 큰 수량의 의미는 무엇일까? 경덕왕대 향득의 사례에서도 포상품으로 租 500섬을 받았다고 한다.⁷⁹⁾ 이를 통해 대체로 효행의 포상은 남들이 부러워 할 수 있는 많은 양을 제공함으로써, 효행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경덕왕대 향득의 사례에서는 곡식을 지키는 군사가 파견되지 않은 것과 달리 진성왕대에는 곡식을 지키는 군사가 파견되었다는 것은 신라 하대에 곡식을 훔치는 생활 범죄가 빈번했던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준다.

또한, 손순과 빈녀는 포상받은 집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흥덕왕대는 屋을, 진성왕대는 塵을 받았다. 塵의 경우 왕경내 집이란 뜻과 상점이란 뜻도 가지고 있다. 살림살이만 가능한 손순의 집과 다른 용도가 있는 빈녀의 집의 차이로 인해 그 당시에는 포상에 대한 규칙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빈녀가 하사 받은 집이 塵이라는 것은 사람의 유동이 많은 곳에 있었음을 내포하고 있다. 손순에 비해 빈녀의 사례를 더 노출 시키고자 했던 지배층의 의도를 알 수 있다.

국가에서 포상한 품목이 곡식과 집이란 점은 동일하나, 그 규모의 차이는 당시 시대적 상황의 차이를 반영한다. 흥덕왕대와 진성왕대 모두 가뭄으로 고생했다. 그러나 흥덕왕대는 지방의 수취체제가 비교적 안정적이었고,⁸⁰⁾ 진성왕대에는 그렇지 못했다.⁸¹⁾ 이러한 차이로 인해 하사한 곡식이 양적 차이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하사한 집의 특성 차이로 효행의 사례를 노출하고자 하는 의도의 차이도 엿볼 수 있다.

손순과 빈녀는 둘 다 정치적 필요에 의해 포상과 표창되었지만, 빈

79) 『삼국유사』 권5, 효선 제9, 向得舍知割股共親 景德王代.

80) 김호범, 「신라 흥덕왕대의 청해진 설치 배경」 『역사학연구』 29집(2007) 참조.

81) 권영오, 2011, 앞의 책, pp.252-282.

녀의 이야기는 ‘효녀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삼국사기』에도 그 이야기가 남아있는데 반해, 손순의 이야기는 『삼국유사』에만 남아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삼국사기』 효녀지은과 『삼국유사』 빈녀양모는 같은 내용으로써 서로 보완적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⁸²⁾ 인물이 거주한 지역과 포상의 수치 등은 『삼국유사』보다 『삼국사기』에 수록된 내용이 상대적으로 더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그런데 『삼국유사』는 일연이 오랫동안 수집하고 섭렵한 자료를 바탕으로 편찬되었다. 특히 그 속에 포함된 빈민 관련 이야기들은 당시까지 전해오던 기록들 가운데서 감동과 교훈을 염두에 두고 일연이 가려 뽑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연은 서로 다른 기록이 있을 경우 이들을 대조하여 夾註를 다는 실증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⁸³⁾ 일연은 자신이 취사선택한 내용이 『삼국사기』에 수록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각색과 윤색을 하지 않았으며, 구전되어 온 내용을 그대로 수록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빈녀양모조의 내용이 효녀지은과 비교했을 때 더욱 사실적이다.⁸⁴⁾

손순설화가 『삼국사기』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사서의 성격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割股 효행을 행한 향덕과 성각에 대해서는 기재하면서 손순을 외면한 것은 그 효행방법이 자식을 희생시키는 내용으로서 『삼국사기』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

유교적 효행은 가족중심적이며 현세적인데,⁸⁵⁾ 손순의 행위는 가족해체를 추구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삼국사기』에 수록되지 않았던 손순설화는 조선시대에 들어 『명심보감』에 수록되어 효를 대표하는 이야기가 된다.⁸⁶⁾ 『명심보감』 효행편 속편에 수록된 손순의 이야

82) 전기웅, 2005, 앞의 논문, p.10.

83) 하일식, 2006, 앞의 논문, p.96.

84) 조범환, 2009, 앞의 논문, p.158.

85) 정수동, 2011, 앞의 논문, pp.280-281.

86) 임재해, 1990, 앞의 논문, p.238.

기에서는 흥효사 건립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을 뿐, 설화의 골격은 『삼국유사』와 동일하다. 『삼국사기』와 『명심보감』의 사료 성격이 다르기에 이를 두고 고려와 조선의 효관념이 달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삼국사기』에서 손순을 수록하지 않은 것은 당시 손순의 사례보다 빈녀 즉 효녀 지은의 사례가 열전에 수록될 만하다고 파악한 것으로, 이는 유교 관념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설화는 공통적으로 주인공이 불사를 지어 불교에 귀의한다. 손순은 弘孝寺를, 빈녀는 兩尊寺를 만들었다. 여기서 각 사찰들은 자신의 집을 희사하여 만든 것으로, 그 의미를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다. 弘孝寺는 효를 널리 한다는 의미, 兩尊寺는 두 사람을 높인다는 의미인데, 사찰을 짓는 과정에서 사찰명을 붙여준 이를 설화의 내용에서 유추해 보았다. 손순의 경우 흥덕왕과, 빈녀의 경우는 효종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므로, 이를 통해 사찰명칭도 흥덕왕과 효종랑이 지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의 사후를 위해 사찰을 짓는 효행의 결과는 불교적 대효와 연결된다. 『삼국유사』 효선편에 수록된 5개 설화 가운데 향득의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교적 색채가 강하다. 진정사 효선쌍미에서 진정은 출가를, 대성효이세부모 신문대에서 대성은 불국사와 석불사를 만들었다. 그런데 진정과 대성이 손순, 빈녀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는 없다. 종교에 귀의하는 양상은 같으나, 진성과 대성은 국가로부터 포상과 표창 받지 않았다. 손순과 빈녀의 효행은 포상과 표창으로 인해 신라 사회에 공개 되었을 것이다. 그런 그들이 사찰을 만들었다는 것은 현실적인 보상을 넘어선 내세를 위한 행동이라 생각된다.

효는 국가의 기초 단위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회와 국가유지의 기본이 된다. 신라 하대는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경제적 약화가 겹쳐진 상황에서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효관념이 더욱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효행의 방식이 신라 하대에 들어 극단적

으로 변화했고, 이를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홍덕왕은 弘孝寺를 통해 손순의 일을 널리 알리고자 했다. 기근이 극심하여 포상의 정도를 몇 백석의 단위로 제공하지는 못했지만, 효행을 기리고자 사찰을 짓고 그 사찰의 운영에 일조했다. 그런데 진성왕의 경우는 다르다. 홍덕왕이 손순을 먼저 찾아 포상한 것과 달리 빈녀의 경우는 진성왕이 아니라 효종랑과 낭도들이 먼저 나서서 그녀를 도와주었다. 이는 진성왕대에 왕경민들의 생활이 궁핍해졌지만, 국가차원에서 구휼정책을 시행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화랑이 나서서 왕경민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포상을 내세웠고, 그 명목을 孝로 강조한 것이다. 이로써 홍덕왕과 진성왕은 효를 통해 국가적 안정을 추구하였다는 점은 같으나, 그 지향하는 바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즉, 홍덕왕은 효를 충으로 이끌어내는 정치적 방법으로 사용하였으나, 진성왕은 이보다는 축소된 개념으로, 효를 자신들의 입지를 안정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신라 하대를 배경으로 하는 손순매아와 빈녀양모 설화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신라 하대의 효의 모습을 찾고자 했다. 신라 사회에서 孝는 가정을 이루는 기본 행위를 넘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었고, 이는 하대에까지 연결된다. 국가로부터의 포상과 표창을 받았던 두 사람이 불교를 통해 내세를 위하는 것으로 보아, 신라 하대에 들어 효가 현실의 포상을 넘어, 내세를 생각하는 불교적 大孝가 중시되었음을 보여준다.

V. 결론

孫順埋兒와 貧女養母를 분석하여 신라하대 효와 선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하였다.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손순매아와 빈녀양모는 유교적 효행을 바탕으로 불교에 귀의한 설화로 분류되었다. 빈녀의 효행은 養志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유교적 효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손순의 효행방식은 부모만을 위한 행동으로 불교적 효에 가까웠다. 이런 차이를 보이는 두 설화가 동일하게 분류된 것은 국가적 포상과 표창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두 설화를 분석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이 차이를 통해 신라 하대 孝의 모습을 찾고자 했다.

먼저 孫順埋兒에서는 오로지 부모를 위해 자식을 희생하겠다는 부부의 의지를 통해 효행 방식이 불교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흥덕왕과 손순이 긴밀하게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설화 내용에서 흥덕왕이 사신을 통해 손순을 먼저 찾아갔던 것. 그리고 弘孝寺 사찰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것이 분석과정에서 파악되었다. 더불어 손순이 국가로부터 받았던 포상은 매해 매벼 50석과 屋으로 흥효사의 운영자금과 손순 가족을 위한 집만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손순에 대한 흥덕왕의 포상은 국가운영차원에서 효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효에 대해 널리 알리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충심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貧女養母에서는 걸식으로 연명하던 여성이 자신의 신분을 팔아 어머니를 봉양했다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에서 부각되는 인물은 효종왕이었다. 효종이 빈녀의 이야기를 듣고 포상하자 그의 낭도들도 동참했으며, 이는 진성왕에게까지 이어진다. 가난한 왕경인 빈녀를 위한 화랑들의 행동에 왕이 동조한 것이며, 왕은 자신의 입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빈녀의 사례를 이용하였다. 빈녀는 진성왕으로부터 500석의 곡식과 廩을 하사받았다. 왕경 변화가에 자리했을 빈녀의 廩은 이후 兩尊寺가 되면서 빈녀의 일은 회자되었을 것이다. 兩尊寺라는 명칭은 효종이 지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親과 君을 부처에 버금가게 높이하고자 했다. 그리고 빈녀가 거주한 곳은 孝養坊으로 불리게 된다. 이

는 坊에 거주한 이들도 빈녀 효행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되며, 양존사와 빈녀의 효행은 정치적 안정을 위해 이용되었다.

두 설화의 분석과정에서 신라 하대 효행의 모습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효행에 대한 유사사례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손순과 빈녀의 孝行은 유사한 방식을 찾기 어려웠고, 포상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 경덕왕대 향덕과 신라 하대 성각의 사례는 포상이 先例를 따라 간다고 생각되었지만, 손순과 빈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당시 국가적 상황에 필요로 인해 포상을 했고, 그 수량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흥덕왕은 손순의 효를 통해 효치주의를 강조했고, 효종왕과 진성왕은 빈녀의 효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는데 이용했다.

신라시대 효행에 대한 포상과 정표정책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정이 없었다. 특히 旌表는 향덕과 빈녀에게서만 보이고 있어 특수한 경우였다. 향덕과 빈녀의 거주지까지 효와 관련된 지명으로 바뀌는 것으로 보아 정표는 국가적 필요에 의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손순매아와 빈녀양모의 설화를 분석하여 신라하대 효의 모습을 확인하고자 했다. 효라는 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행위이다. 이런 효를 충으로 그리고 국가적 통치이념으로 활용하는 것은 신라 전반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하대에 들어 그 범주가 축소되고, 방법이 극단적으로 변화하였지만 여전히 국가에서는 효를 활용하여 민심을 안정시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흥효사와 양존사 건립을 통해 신라 하대로 갈수록 효가 현실에만 국한되지 않고, 내세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고 생각된다.

■ 논문투고일자: 2014.4.15. 심사완료일자: 2014.5.8. 게재확정일자: 2014.5.15.

Studying Filial Duty in the Late Period of Silla
Through *Sonsoon : attempt to bury a child* and *A Poor Daughter and Mother*

Ko, So-jin

[Abstract]

This manuscript was written in order to study the traces of filial duty in the late period of Silla through *Sonsoon : attempt to bury a child* and *A Poor Daughter and Mother*, which are contained in the chapter of filial piety and virtue in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In the story, *Sonsoon : attempt to bury a child*, poor parents tried to bury their child for the father's mother, however, they found a stone bell, King Heungduck, who hears the ringing sound of the bell, called Sonsoon upon him and awarded Sonsoon for his filial duty. After, he contributed his old house and built Honhyo Buddhist Temple.

Sonsoon's way of filial duty is sacrificing one's child only for one's parents, which is Buddhistic way. The reward from King Heungduck contributed Sonsoon to build Honhyo Temple, and the name of the temple, Honhyo, was also named by the king. Through Honhyo Temple, which means promulgating filial duty, we can figure out that the king aimed to boost the loyalty to the Kingdom.

In the story, *A Poor Daughter and Mother*, a woman, who lives as a beggar, supported her mother by selling a part of her body, but she realized her action was not what her mother wanted and meditates the true meaning of filial duty. Not only the daughter and mother appears but also Hyojongrang stands out in the story. Starting with Hyojongrang's reward for the filial duty of the daughter, even King Jinseong commended and rewarded her. The story of the poor daughter caused Hyojongrang to stand out politically and was used for King

Jinseong to stabilize his stand politically.

The poor daughter, after the commendation and the reward, contributed her rewarded house to built Yangjon Buddhist Temple. The name Yangjon was named by Hyojong, meaning up-rearing the king and parents as high as Buddha.

The background of these two stories is just same, the ways of filial duty and reward/commendation are not the same. Though, the stories received attention because the results of both filial duties end up with Buddhist services. Honhyo Buddhist Temple and Yangjon Buddhist Temple are instances which appear after prohibition of Buddhist service of King Aejang, especially, they are built by people of upper class. They were not built in the reason of political method nor concealment for wealth. Their reasons of contributing the houses seemed just for living. The filial duty in the late period achieves stabilization of reality through the filial duty and also pursues stabilization of afterlife.

The filial duty is very fundamental action in a family. Using the concept of the duty for loyalty and national ruling ideology was appeared in every corner of Silla. In the late period, the category of the duty shrank and ways changed dramatically extreme, but still the country utilized the filial duty in order to stabilize public sentiment. Also, through building Honhyo and Yanjon Buddhist temple, as the country reached the late period, it is thought that the filial duty was not only in consideration for the reality but also aiming to the afterlif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n History Department /
sojin8179@hanmail.net)

주제어 : 효선편, 손순매아, 빈녀양모, 신라 하대 孝, 흥효사, 양존사

Key words : The Chapter of Filial Piety and Virtue, Sonsoon : attempt to bury a child, a poor daughter and mother, The Late Period of Silla of Filial Piety, Honhyo Buddhist Temple, Yangjonsa Buddhist Temple